

How We Recognize Each Other

서로가 서로를
알아차리는 방법

1st
6.2.Tue ~ 7.26.Sun

한영희 Han Young hey
김은정 Kim Eun jung
김채린 Kim Chae lin

How We Look at Each Other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방법

2nd
8.4.Tue ~ 9.30.Wed

틈사이로
김동호 Kim Dong ho
문봉수 Moon Bong su
박재진 Park Jae jin
배중환 Bae Jong hwan
유승준 Yoo Seung jun
이상욱 Lee Sang wook
이준승 Lee Jun seung
최재혁 Choi Jae hyok
한예은 Han Ye eun

How We Care for Each Other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방법

3rd
10.6.Tue ~ 12.31.Thu

유수지 Yoo Suzy
유 리 YOO LI
김경숙 Kim Kyoung sook
신수향 Shin Su hang
신현채 Shin Hyun chae

2026. 6.2.Tue ~ 12.31.Thu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 2층 기획전시실 1

총괄 안교성 | 전시 총괄 손승호 | 전시 기획 류재인 | 전시 지원 최명연 김지연

이 전시는 서울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음성 해설 바로가기



수어 해설 바로가기

서로가 each to each 서로를

우리는 모두 연결된 존재입니다.

서로 다른 감각과 경험, 그리고 표현 방식은 단절의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는 연결 고리입니다.

작가들은 각자가 마주한 세계를 고유한 시선과 언어로 그려냅니다. 그 작품은 우리에게 감정을 건네고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조금 더 천천히 바라보고, 생각해 볼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전시는 돕는 사람과 도움받는 사람, 장애와 비장애라는 이분법을 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동등한 존재로서의 '우리'를 바라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타인의 삶을 알아차리는 일, 사람을 향해 시선을 두는 일, 그리고 마음을 쓰는 행동은 특별한 선택이 아니라 연결된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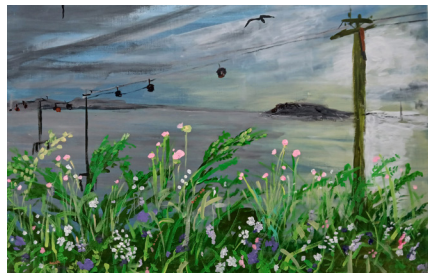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은 배리어프리 설계로 지어졌습니다. 배리어프리barrier-free란 물리적·사회적 장벽을 낮추어 누구나 동등하게 공간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뜻합니다.

《서로가 서로를》은 서로를 알아차리고, 서로에게 관심을 두며, 서로를 위해 마음을 쓰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를 묻는 전시입니다.

이곳에서 '다름'은 구분이 아니라 가능성이 되고, '연결'은 이해를 넘어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Part 1. 기억으로 그리기_한영희

Drawing from Memory_Han Young hey



화성 전곡항 • 2025 • 캔버스에 아크릴 • 66×91cm

Part 2. 손끝으로 듣기_김은정

Listening with Fingertips_Kim Eun jung



Eleleu • 2023 • 천, 탈실, 핀 • 200×100×7cm

Part 3. 몸으로 보기_김채린

Seeing with the Body_Kim Chae lin



풀어나는 조각 • 2024 • 강화석고 등 복합재료, 스피커(사운드: 서해민) • 52×44×72cm

1st

서로가 서로를 알아차리는 방법

How We Recognize Each Other

우리는 같은 세계를 살아가지만, 같은 방식으로 느끼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소리로, 누군가는 빛과 색으로, 또 다른 누군가는 촉감과 움직임으로 세상을 만납니다. 감각은 각자가 세계와 관계 맺는 고유한 언어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감각을 기준으로 세계를 이해해 왔습니다. 익숙한 방식은 보편이 되고, 다른 경험은 낯선 것으로 남기도 하죠. 그때 생기는 작은 틈이 서로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 거리 앞에서 잠시 멈춰볼까요? 서로 다른 감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세계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전시는 다름을 설명하기보다, 그저 느껴보기를 제안합니다. 알아차림은 이해로 향하는 조용한 발걸음일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방법

How We Look at Each Other

2nd

우리는 매일 많은 무언가를 마주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은 단순히 확인하는 행위를 넘어 어떤 존재에 '마음을 두는 일'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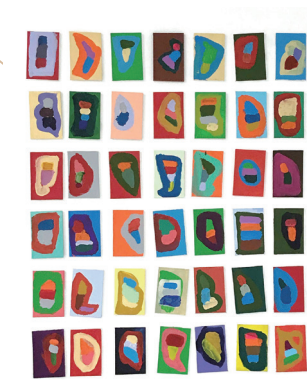
우리는 타인을 얼마나 오래 바라보았을까요? 얼마나 천천히, 그리고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마주하려 했을까요?

관심은 이해의 출발점입니다. 상대를 향한 작은 관심이 어찌면 우리의 삶을 더 즐겁고 여유롭게 만들어줄지도 몰라요.

이 전시는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천천히, 오래,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에 대하여.

Part 1. 마주보기_배종환, 이준승

Facing One Another



이준승 • 색과 선 • 2023 • 캔버스에 아크릴 • 15×10cm

Part 2. 머물기_문봉수, 박재진, 최재혁, 한혜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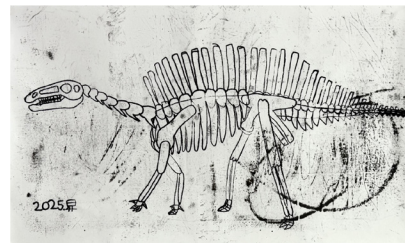
Staying with the Gaze



박재진 • 공원사람들 II • 2025 • 종이에 아크릴과 잉크 (혼합재료) • 28.8×47.6cm

Part 3. 자리두기_김동호, 유승준, 이상욱

Making Space for Each Other



유승준 • 공룡화석 시리즈 • 2025 • 종이에 먹물 • 45×75.5cm

Part 1. 먼저 물어보기_유수지

Asking First_Yoo Suzy



우리는 하나로 이어져서 둥근 마음으로 • 2025 • 캔버스에 아크릴 • 130.3×130.3cm

Part 2. 끝까지 듣기_유리

Listening Actively_YOO LI



Relative boundary • 2024 • 스테인레스스틸, 알루미늄에 도색 • 64×120cm

Part 3. 나란히 서기_김경숙

Standing Side by Side_Kim Kyoung sook



함께 • 2024 • 지본 채색 • 73.2×90cm

3rd

서로가 서로를 위한 방법

How We Care for Each Other

서로를 이해하는 일은 생각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상대를 향한 마음은 작은 행동 속에서 비로소 드러납니다.

《위한 방법》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어떤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먼저 묻는 일, 끝까지 듣는 일, 그리고 나란히 서는 일.

이 세 가지의 작은 실천은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서로를 동등한 존재로 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서로를 위한 마음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